

소련의 이주 정책과 고려인 강제이주 (1920-1937)

- 송 잔나 (모스크바고등경제대학교)

소련 전연방이주위원회

옛 세대 고려인들의 회상은 물론이고 최근 수년 동안의 역사연구를 통해 불법적이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강제이주의 전체상의 수많은 조각들이 밝혀졌다. 또한 스탈린이 내린 결정의 자발성과 실행과정의 자연발생성에 대한 초기의 잘못된 고정관점이 배격되었다. 물론 스탈린이 극동의 고려인 모두를 파멸로 이끌기를 원했다는 종래의 관점에도 동의하기는 힘들다. 고려인 강제이주는 대규모 강제이주의 메카니즘으로 나아가고 있던 전체주의 정권의 대대적인 활동에 따라 계획되었고, 조직되었고, 조심스럽게 조정되었다.

러시아 10월혁명 이후 내전 시기에 자연적인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국가지도자들은 1924년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전연방이주위원회를 창설했다.¹⁾ 동시에 소련 전연방이주위원회와 함께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교정노동수용소본부 산하에 이주과가 만들어졌다. 이 부서에는 바이칼-아무르철도의 건설을 비롯한 소련의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하는 지역에 농촌 기지들을 건설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1936년 6월 10일 소련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연방이주위원회는 소련 내무인민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이주과가 조직되어 1939년까지 존재했고, 소련 이주총본부는 최대1953년까지 소비에트 인민의 이주 업무를 담당했다.²⁾

소련 정부의 이주 정책은 경작지 개발을 위해 정착을 시키는 방향으로만 나아간 것이 아니고, 이민족을 국경지대로부터 청소시키는 방향으로도 나아갔다. 그리고 그 첫 대상은 자신의 국가를 가지지 못한 민족들이었다. 이 경우,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 소수민족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주사업을 위한 5개년 계획(1928/29~1932/33)의 주된 과제는 극동, 카자흐스탄, 시베리아로 주민들을 이주시키는데 있었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지역들에 공공대출의 85.5%를 지출할 계획이 세워졌다.³⁾ 그러나 부농의 숙청과 집단화, 그리고 이로 인해 초래된 대규모 기근 때문에 계획은 수정되어 뽀볼지예, 아조보-츠히르노모르스키 크라이, 시베리아, 극동, 부랴트-몽골 그리고 야쿠츠크로 주민의 이주가 실행

1) РГАЭ. Ф. 5675, оп. 1, д. 1. Собрание узакон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рабочих и крестья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1925. № 49. С. 371.

2) РГАЭ. Ф. 5675, оп. 1, д. 1. Собрание узакон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рабочих и крестья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1925. № 49. С. 371.

3) Там же, д. 7, л. 9об.

되었다.⁴⁾

이주 정책의 목적과 과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소련 전연방이주위원회는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다. 소련의 전지역에서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지정학적 상황, 토지의 가용성과 이용의 필요성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민이 유출되는 지역과 정주하는 지역 그리고 이주사업에 소요될 자금의 지출 절차 등이 확인되었다.⁵⁾ 맨 먼저 전연방이주위원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극동,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그리고 카렐리야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주민들을 정착시키기로 하였다.

이주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엄격한 통제가 실시되었다. 주민들은 사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계획된 이주자들과 계획되지 않은 이주자들로 구분되었다. 이주자들은 이주지로 옮겨가도록 허가된 특별 티켓을 받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착신용대출의 형태로 초기 재정지원을 제공받았다. 때때로 국가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이주자들은 제때에 그것을 지출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장소에 대한 오래된 정착과정과 불안감, 수확을 하지 못함 그리고 다른 여러 요인들 때문이었다.

소련 정부는 경작지 개척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하했다. 그러나 이 자금들은 종종 이주자들에게 제공되지 못했다. 정주 지역 당국의 기관들은 새로운 공민들을 따돌이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주택은 종종 아예 준비되어 있지 않았거나 또는 살기에 부적합하였다. 때문에 많은 이주자들이 예전 거주지로 돌아갔으며, 굶주림은 그들을 대규모 건설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도시로 이끌었다.⁶⁾

계획된 이주민들 중에는 농민들과 적군병사들이 있었다. 즉 그들은 정착 명령에 따라 개척지로 옮겨왔다. 1927/28년 극동으로의 이주 계획에는 러시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각 주(쿠르스크, 탐볼스크, 오를로프스크, 보로네즈스크, 펜젠스크, 브란스크, 스몰렌스크 등)에서 26,000명, 우크라이나로부터 24,000명, 벨로루시로부터 5,000명의 이주자가 할당되었다. 그러나 재정 자금의 부족으로 계획된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없었다.

1926-1927년에 예정된 42,000명의 이주자들 중 단지 13,005명만이 도착했다. 그리고 11,640명이 할당된 지역에 정착하였다(계획의 27.7%). 그 해에 27,987명이 정착했고, 1927-1928년에는 36,091명이 정착했다. 돌아간 수는 이 두 해에 16.4%와 20%에 달했다. 1928-1929년의 첫 해에는 45.7%에 달했다.⁷⁾

소련 토지건설인민위원회의 운영 계획에 따르면, 1931년에 소련 인민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주를 결정했다. «제대한 적군들의 농업 이주자 10,000호(35,000명)를 극동으로 이주시켜 정착시킬 것. 이외에 1932년에 제대한 적군들의 이주자 15,000호(52,500명)를 극동으로 이주시킬 수 있도록 준비 사업을 실행할 것».⁸⁾ 이 사업에

4) Там же, д. 2, 3, 4.

5) Там же, д. 165, л. 2 - 67.

6) Там же, д. 36, л. 35.

7) См.: Народ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 в XVII - XX вв.: Историко-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черки. Кол. авт. М., 1985. С. 69.

8) РГАЭ. Ф. 7486, оп. 19, д. 102, л. 52.

24,489,000루블의 자금이 할당되었다. 당시 소련 전체 예산은 60,057,900루블이었다.⁹⁾

이주자들은 전연방이주위원회로부터 «상환의무가 없는» 대부금과 «상환의무가 있는» 대부금을 받았다.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농민들이 이주를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이주의 이유는 «상환의무가 없는» 대부금 때문이었다. 이 대부금을 받은 이주자들은 종종 지정된 장소까지 도착하지 않고, 받은 자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다. 이외에도 되돌아가는 사람의 비중도 컸다. 실제로 40%에 이르는 이주자들이 새로운 땅에서 살지 않았다.¹⁰⁾

소위 «귀향 경향»의 원인을 단지 이주자를 수용할 지방당국의 준비부족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인간적인 요소도 있었다. 부농의 숙청과 대규모 집단화 이후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주자들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했다. 모든 면에서 «낮선 이들»의 수용을 방지했으며, 자주 그들을 위협했다. 국가의 특정 지역에서는 인민 대중들의 돌진을 제어하기 힘들었다. 그 중에는 각기 다른 민족들도 있었고, 각기 다른 사회계층들도 있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지방민들과 «낮선 이들» 사이의 민족간 관계를 악화시켰다.

1920년대 말 극동을 포함한 전국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투쟁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지역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악화시킨 이유 중 하나를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하듯이 단지 «토착화» 정책만으로 볼 수는 없다. 소련 전 지역에서 계획적으로 수행된 이주 정책에도 그 이유가 있었다.

1930년대까지 민족주의 문제는 탈선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그때 전연방중앙집행위원회와 소련 인민위원회의 모든 회의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서 실제로 결정을 심리하고 실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1930년 4월 20일자 전연방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명령이 내려졌다. «극동주집행위원회에게 민족정책 분야에서 전 극동주의 경제적, 정치적 발전과 함께 민족정책의 일관된 구현과 소수민족의 포괄적인 대접을 보장할 것».¹¹⁾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예정된 결과를 끌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민족문제에서 두 가지 주된 편향-«지역 민족주의의 주요 위협으로서 강대국 소비니즘»-에 대한 투쟁을 불러온 1930년 6-7월의 전소연방공산당(볼셰비키) 제16차 대회 이후 당국의 활동은 더욱 거세졌다.

연해주에서 이 캠페인은 동방 이민자들의 억압에 대한 투쟁의 기치 아래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중국인 및 한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관계의 사실을 파헤쳤던 당과 소비에트 기관, 검찰, 지방 정기간행물이 참여했다.

러시아인 노동자들과 비교하여 동방의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같은 일을 해도 적은 보수를 받았고, 훨씬 더 힘들고 매력없는 사업을 수행했다. 그들은 러시아 노동자들보다 나쁜 옷, 구두, 음식, 주택을 제공받았다. 이외

9) Там же, л. 56 - 57.

10) Там же, д. 105, л. 134 - 139.

11) ГАРФ. Ф. Р. 3316, оп. 2, д. 1073, л. 21.

에도 그들에 대한 경멸적이고 무례한 태도 즉, 개인 존엄성을 모욕하는 태도를 지적할 수 있다.¹²⁾

1930년 7월 21일 전연방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는 «극동주에서 중국인들과 한인들에 대한 민족정책의 실제적인 수행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이 문서들에 따라서 1930년 극동지역 재판소는 123건의 사건을 심의했다. 그리고 또한 동양인들의 물질적, 문화-풍속적,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88건의 사건이 올긴, 포세트, 수찬 지방의 재판정에서 공소 제기되었다.¹³⁾

사람이 살지 않는 새로운 땅에 인민대중을 민족 단위로 조직하고 살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심각한 경제위기, 광범위한 기아, 거주지의 부족 그리고 경작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자들과 토착민들 사이에 민족 분쟁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런 이유로 1930년에 소비에트 정부는 극동으로 농민을 이주시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였다. 앞으로는 개별적인 이주를 중단하고 집단농장과 협동조합을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936년 6월 10일자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기반하여 소련 인민위원회 산하 전연방이주위원회의 업무는 내무인민위원회 교정노동수용소본부로 넘겨졌다. 소련 인민위원회 산하 전연방이주위원회 업무의 인계에는 1933년부터 1036년 7월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전연방이주위원회는 65,000 가구를 이주시켰는데, 이중에서 37,528 가구(57%)가 다시 되돌아갔다. 정주지에는 28,183 가구(43%)가 남았다.¹⁴⁾

되돌아간 사람들은 1933-1934년에는 65.8%였고 1935년에는 17%였다. 전연방이주위원회가 활동한 3년동안 57%였으며, 이로 인해 수천만 루블의 국고가 낭비되었다. 전연방이주위원회의 활동 시스템은 다음과 같았다. 이주자들이 떠나온 곳으로부터 정착지에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이주자들에게 영구대부금(이주자들을 비포장도로와 철도로 이동시키고 그들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제한되었다. 3년동안 지출한 금액은 69,785,300루블이었고, 그 중 영구대부금은 29,402,800 루블이었다.¹⁵⁾

이주의 주요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이주자를 위한 주택과 생산 기관의 준비, 가전제품 준비, 문화기관과 의료기관의 설립, 학교, 유아교육기관, 탁아소의 설립, 이주자들을 위해 지역기관에서 제공한 건축자재의 지출 조정 등등 - 이러한 문제들은 이주자들이 정착한 지역의 기관들과 콜호즈에게 지워졌다.

소련 전연방이주위원회는 이주를 위한 자금을 농업은행을 통해 소련 재무인민위원회와 중앙과 지방의 기관들에 할당된 국가예산에서 융통했다

12) Тихоокеанская звезда. 23 октября, 12 ноября 1930; Там же. 17 января, 7 февраля, 8 февраля, 29 марта 1931 и др.

13) Этно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в Приморье в XX в. С. 91.

14) РГАЭ. Ф. 5675, оп. 1, д. 165, л. 47.

15) Там же.

소련 전연방이주위원회가 이주에 지출한 금액(1933-1936)

기간	지출 금액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금	상환의무가 없는 대출금	기관 지출금	합계
1933~1934	35,374,300	14,002,400	963,934	50,340,634
1935	2,508,200	5,150,400	737,129	8,395,729
1936	2,500,000	10,250,000	938,583	13,688,583
합계	40,382,500	29,402,800	2,639,646	72,424,946

Источник: РГАЭ. Ф. 5675, оп. 1., д. 165, л. 47.

가구당 지출(1933-1936)

정착 지역	연도	가구당 지출 금액		
		상환의무	무 상환의무	합계
아조보-쇼르노모르스키주	1933~1934	198	1,544	1,742
우크라이나 주변	1933~1934	252	277	529
극동주	1934	197	2,877	3,074
동시베리아	1935	1,013	392	1,405
동시베리아(예정)	1936	1,624	500	2,124

Источник: РГАЭ. Ф. 5675, оп. 1., д. 165, л. 47.

만일 1933-1934년에 상환의무가 있는 대부금 지출이 상환의무가 없는 대부금으로 바뀐다면, 1936년에 상환의무가 없는 대출금 지출은 거의 4배로 늘어난다. 극동주에서 1934년에 한 가족에게 지출된 금액은 3,704 루블이었는데, 이중 상환의무가 없는 대출금이 2,877 루블이고,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금은 197루블이었다. 이 수치는 극동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낮은지를 얘기해준다.

정부의 정책이 예상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자의 존재는 정부로 하여금 상환금액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다. 귀환자들에게 지출된 금액은 30,325,912 루블이었다. 3년간 37,523 가구가 예전에 살던 지역으로 돌아갔다. 전연방인민위원회 지도부는 이 금액을 상환받을 수 없는 손실로 취급했다.

게다가 전연방이주위원회는 재정착지역에 남아있는 이주자들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지역의 활동가와 개별 직원들의 보고서에 있는 단편적인 정보로는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지도부는 이주자들의 경작지, 수확 그리고 정부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토지의 개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했다.

이주자들은 가족의 구입, 주택과 별채의 건축 그리고 오래된 주택의 수리를 위한

자금을 받았다. 각 가정은 대출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전연방이주위원회는 이 자금의 상환방법에 대한 어떠한 관념도 없었다. 또한 농업은행을 통해서 정부에 의해 할당된 자금으로 취득한 농업용 재산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전연방이주위원회는 농업은행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제공된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금의 상환 진행에 대한 정보도 가지지 못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이주정책의 비효율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 1936년에도 계획된 이주를 계속해나갔다. 여기에 할당된 자금은 다음과 같다. 상환의무가 없는 대출금 - 26,650,000 루블,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금 31,000,000 루블, 합계 57,750,000 루블.¹⁶⁾

1936년 소련 전연방이주위원회는 다음 지역으로 30,000 가구의 이주를 계획하였다. 극동주 - 3,000, 동시베리아 - 6,000, 첼랴빈스크주 - 6,000, 옴스크주 - 3,000, 스베르들로프스크주 - 5,000, 쿠이비셰프스크주 - 2,000, 사라토프주 - 5,000, 합계 - 30,000 가구.¹⁷⁾ 이주자들의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바노프스크주 - 2,000, 자빠드나야주 - 3,000, 타타르사회주의공화국 - 3,000, 고릭코프스키주 - 6,000, 보로네쉬주 - 4,500, 쿠르스카야주 - 10,000, 각 주의 제대 적군병사 - 1,500, 합계 - 3,000 가구.¹⁸⁾

1937년에는 18,500 가구의 이주가 계획되었다 : 극동주 - 2,000, 동시베리아 - 3,000, 카자흐스탄사회주의공화국 - 1,000, 오렌부르크주 - 2,000, 크라스노야르스크주 - 3,000, 타지키스탄 - 5,000, 자카프카즈사회주의공화국연합 - 500, 비로비잔 - 1,000, 기타 주(집시) - 1,000, 합계 - 18,500 가구.¹⁹⁾

이외에도 1938년 이주를 준비하기 위해서(주택의 건설, 목재의 조달) 1937년에 가정의 가장들(남성)을 다음 지역으로 이주시킬 예정이었다. 극동주 - 2,000 명, 오렌부르크주 - 1,000 명, 크라스노야르스크주 - 1,000 명, 합계 8,000 명.²⁰⁾ 이주한 가족의 주택을 사전에 확보하라는 결정이 승인되었다.

소련 전연방이주위원회 사업은 내무인민위원회로 인계된 후 강화되었다. 1936년 8월 6일자 300호 명령에 따라 카자흐스탄사회주의공화국 내무인민위원회 부책임자인 국가안전부 소령 볼로딕코에게 이주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전 지역의 황무지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²¹⁾

국가 지도부는 1936년에 면화, 사탕무 그리고 담배의 경작지를 확장하라는 결정서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부 카자흐스탄과 알마티주에 18,000 가구를 정착시킬 계획이 수립되었다. 1937년에는 정부 결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로부터 카자흐스탄사회주의공화국으로 15,000 가구를 이주시킬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재정의 부족과 주택 및 건축자재의 부족 때문에 소련 국가계획위원회는 단지 1,000 가구를 보로네쉬

16) РГАЭ. Ф. 5675, оп. 1, д. 7, л. 33.

17) Там же.

18) Там же, л. 32.

19) Там же.

20) Там же, л. 31.

21) Там же, л. 25.

주로부터 이주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²²⁾

1936년 11월에 카자흐스탄사회주의공화국의 황무지는 3,008,000 헥타르였는데, 그 중 농업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1,154,000헥타르였다.²³⁾ 카자흐스탄의 대부분 지역에는 개방된 저수지가 없었다. 그리고 지하수는 60-100미터 깊이에 있었고, 국유지는 행정중심지와 철도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농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많은 담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목축 소포즈의 조직도 매우 힘들었다.

동카자흐스탄주에서도 역시 황무지는 철도 중심지로부터 떨어져(70-300 킬로미터)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토 토양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황무지의 개발은 혹독한 기후조건, 황량한 토양 그리고 담수의 부족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 즉, 검사관들은 중앙에 이 지역들은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에 유용하지 않다고 경고하였다.

내무인민위원회 카자흐스탄 지도자들은 이주자들의 정착 자금을 대략 계산하였다. 그에 따르면 북카자흐스탄주에는:

- 7,210 가구 - 황무지 개척
- 8,000 가구 - 콜호즈에 정착
- 15,000 가구 - 소포즈의 땅에 분산

합계 : 31,210 가구.

카라간다주에서는

- 7,000 가구 - 황무지 개척
- 3,000 가구 - 콜호즈에 정착

합계 : 10,000 가구

또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거주지가 없었으며, 만일 있다면 그곳은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다. 북카자흐스탄주에서 이주 가구의 주요 방향은 곡물 경작과 곡물경작을 위한 목축이었으며, 카라간다주에서는 목축업을 위한 곡물경작과 목축업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토지개간과 관개 사업이었다. 중앙의 계산으로는 카자흐스탄 두 개 주에 40,210 가구가 이주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은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다.

이렇듯이 소비에트 인민의 이주 정책은 1920-1950년대 국가 민족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계획된 이주는 예정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가장 가난한 계층의 이주를 예상한 사려없는 민족정책 때문이었다. 이주민의 많은 수는 새로운 지역에 살지 않았다. 자금은 노동 예비금으로 보충되지 못했다. 국가 경제는 이주정책이 예상했던 결과를 낳지 못했다. 극동의 한인들에 대해서는, 소비에트 지도부는 1937년 강제이주 오래 전에 향후 한인들의 거주지를 결정해 놓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1936년 소련 전연방이주위원회 사업이 내무인민위원회 교정노동수용소본부 산하 이

22) Там же.

23) Там же, л. 5.

주과로 이관된 후, 이 정책은 소련의 모든 인민들과 관련하여 강압과 강제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 고려인의 강제 이주

1936년부터 소련 국경 지대의 이민족들은 소비에트 지도부에 의해 외국 정보기관 스파이의 활동을 위한 잠재적인 기지로 간주되었다. 무력 충돌시에 봉기의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다. 때문에 1937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전소연방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의 각 공화국들 그리고 극동주의 국경지대 주민들을 소개시키는 것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쿠르드인, 이란인, 아프간인, 중국인 그리고 고려인은 소련의 다른 먼 주로 강제로 이주되었다.

가장 대규모의 조치는 10월에 만주, 몽골, 중국과 국경을 맞댄 지역으로부터 고려인들을 이주시킨 일이었다. 국가기관은 국경지대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분자들을 이주시키는 인종청소를 실행했다. 1937년 7월 14일자 «동방의 국경 정세에 관하여»²⁴⁾라는 정치국 결정에 따라 청소가 되어야 할 지역의 수가 확대되었고, 이주가 실행되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제한된 국경지대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분자들을 강제이주시키는 임무가 내무인민위원회에 주어졌다.

1937년 7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후 소비에트 지도부는 극동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책을 강구했다. 고려인과 관련하여 이 «방책»은 사실상 전 민족을 추방시키는 것이었다.

우리의 견해에 따르면, 스탈린 지도부는 고려인들이 돌아올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목적으로 고려인의 거주지를 카자흐스탄의 스텝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막으로 결정했다.

소비에트 지도부는 17만 2천명의 고려인을 추방시켜 다음과 같은 이익을 보았다:

- 1) 1936년과 1937년 두 해의 이주계획을 완수했다.
- 2) 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수확, 극동주에서 콜호즈와 주민들의 재산은 실제로 국가 소유가 되었다)
- 3) 지역의 경제를 고양시키기 위해 17만 2천명의 값싼 노동력이 중앙아시아에 도착했다.
- 4) 1953년까지 이주자들 중 누구도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1428-326 cc호 결정서에 제시되어 있는 «일본 스파이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강제이주의 주된 이유는 문제의 정신적, 도덕적 측면으로 귀결된다. 전 민족을 스파이로 간주한 일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РГАСПИ. Ф. 17, оп. 162, д. 21, л. 101.

고려인들 중 가장 용감한 이들은 독단과 불법에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그들은 가축과 곡물의 파괴와 불복종을 호소했다. 극동주 내무인민위원회 기관들은 고려인 주민들의 부정적 감정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체포되어 처벌받았다. 고려인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당은 공산주의자인 우리 고려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또는 «단지 내가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추방하는가». 예를 들어 스파스크 구역 콜호즈 «4 스에즈드 소베토프»의 조합원 주인섭은 «추방에 관한 법률은 옳지 않다. 이주기간은 짧고 돈도 없다. 우리를 보내서 버리는 것이다. 차라리 우리를 모아서 총살하는 것이 낫다. 우리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평화롭고 조용히 살고 있다»라고 천명했다. 비극의 규모는 컸다. «일본 스파이»라는 낙인은 오랫동안 소련의 고려인들에게 덧씌워진 이름이 되었다.

특정 사회 계층과 계급 뿐만 아니라 전체 민족들이 강제이주의 고통을 받았다. 북극지방과 시베리아,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했다. 크림-타타르인, 독일인, 체첸인, 잉구쉬인, 칼미크인, 발카르인, 카라차예프인, 투르크-메스헤텐인, 폴란드인, 아르메니아인, 불가리아인, 마케도니아인, 가가우즈인, 그리스인, 고려인, 쿠르드인, 핀란드인, 중국인, 이란인, 몽골인, 라트비아인, 에스토니아인,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민족들이...